

일본, '1명1일1kg CO₂ 삭감' 폭발적 동참

지난해 6월 일본 환경성이 팀마이너스6% 웹사이트에 특설 페이지를 마련 '목표설정! 1명 1일 1kg CO₂ 삭감' 운동을 펼쳤다. '나의 챌린지 선언' 접수를 통해 이 운동에 참가하고 참가자를 독려하기 위해 협찬기업을 모집하고 있었다. 당시 6월 20일 2개사로 출발한 이 캠페인이 지난해 12월 말 현재 192기업으로 증가했다.

협찬기업은 캐논, 소니, 도시바, 맥도날드, 후지쯔 등 유명 대기업을 비롯 ▷신용금고, 은행, 손해보험 등 금융계 ▷교육출판업계 ▷비영리법인 에코디자인 시민사회 포럼, 환경릴레이션스 연구소 ▷지하철 및 여객수송철도·버스회사, 공항(간사이 국제공항), 항공업계(일본항공), 여행회사 ▷그외 전력, 백화점, 부동산, 예절학원(기모노 예법 학원), 레스토랑체인과 더불어 ▷석유연맹 및 회원사, 일본자동차공업회 등 그 규모와 종류를 막론한다.

최근에도 새롭게 2개 기업이 협찬을 약속했다. 에이텍 주식회사는 '나의 챌린지 선언카드'를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본사에 지참하고 방문한 고객에 대해 '러브 그린(Love Green, <http://www.atec-ks.co.jp/lovegreen.html>)'과 더불어 전기설비 관리방법을 설명한 책자 '만화로 보는 보전활동'을 제공키로 했다.

또 마루젠 석유화학 주식회사는 당사 사원 전원이 '나의 챌린지 선언'에 참가하기로 했으며 고객에 대해서도 웹사이트와 포스터 등으로 운동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 사업소 차원에서는 지역 이벤트를 통해 카드 지참자에 대해 기념품을 증정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나의 챌린지 선언은 지난해 6월 20일 시작돼 '1명 1일 1kg CO₂ 삭감'을 목표로 하는 국민계몽운동이다. 참가방법은 '팀마이너스6%' 웹사이트에 접속해 특설사이트에서 각자에 맞는 실천항목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CO₂ 몇 그램을 줄일 수 있는지 계산한 카드를 각자 소지하고 다니도록 하는 자발적 활동이다.

세계 최초 인터넷 통한 국제 기후회의 'climate 2008' 개최

함부르크 대학 연구센터 'Applications of Life Sciences'가 2008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 기후회의 'climate 2008'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는 다른 기후와 관련된 회의와는 다르게 인터넷만을 이용해 진행된다는데 있다. 한마디로 환경 기후보호를 위해 회의에 참가하고자 항공을 이용하면서 배출된 가스가 공기를 오염시키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 회의 개최 당사자는 먼저 참가하고 싶은 학자나 전문가들이 미리 논문을 제출하는 것을 요청하며, 이렇게 제출된 논문들은 심사를 거쳐 선택될 예정이다. 논문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기후변화이다.

특히 주최사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토론을 하고자 제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 회의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비행 때문에 야기되는 배출가스가 없고 비행이 없으니 비용도 절감되고, 회의의 참가비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기후프로젝트를 전 세계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것이다.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기후 2008' 회의가 목적하는 바가 크다. 기후변화를 토대로 해 가장 근접하고 있는 학문적 인식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연결된 생태계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다양한 견해를 청취할 목적을 또한 두고 있다.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그리고 산업국가 또는 개도국을 불문하고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그리고 기관이 아닌 단체들이 발상한 혁신적이 방법들이 소개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된 내용을 가지고 참가자들은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이 안됐을 때 장애물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기회는 있는가 그리고 지속적 프로젝트와 관계된 잠재성이 있는가 등이 다양하게 토론될 것이라는 주체센터의 발표이다.

무엇보다도 회의를 개최할 함부르크 대학 연구소는 기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하나의 가능성을 주고자 한다. 즉 일반 참가자들이 학자와 전문가들과 연결돼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기후를 보호한다는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회의는 참가들에게 이중 삼중의 좋은 효과를 주면서도 인터넷만을 통해 회의가 진행되는 최초의 시도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정보와 학문을 효과적으로 교환할 수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데 또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climate 2008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용언어를 독일어 또는 영어를 선택할 수 있어 국제적인 면

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회의에 참여를 원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은 자신의 논문을 www.klima2008.net에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한 안내글들을 읽을 수 있다. 회의개최 연구소의 학자들은 논문으로 제출된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심사해 발표될 논문을 선정할 예정이다.

영국, '온라인 탄소계산기' 개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지구를 지키는 것보다는 살을 빼는 데 관심이 더 많다. 영국 정부포털인 유거브(YouGov)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국인 중 15%만이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도록 돕기 위해 영국 정부는 온라인 탄소계산기(웹사이트 www.direct.gov.uk/ActOnCO2)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탄소발자국에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개인별 액션플랜을 제공해 준다.

영국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의 40% 이상이 개인에 책임이 있다. 주로 가정과 교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간단하고 돈 안드는 방법들이 많다. 여기에 영국 환경부인 환경식품농촌부(Defra)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들어 본다.

▶자가용을 타기보다는 자전거를 타고 통근하고 아이들은 걸어서 유치원이나 학교까지 데려다 준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전제품(텔레비전, DVD 플레이어, 스테레오)을 대기 상태로 놓지 말고 플러그를 뽑는다. ▶실내온도조절기를 1

℃만 낮춘다. ▶온수기와 파이프를 단열재로 덮는다.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는 빨랫감이나 식기가 다 차면 돌린다.

UNEP, 관광객의 환경배려 촉진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은 인터넷을 통해 '그린 여권(Green Passport)' 캠페인(<http://www.unep.fr/greenpassport>)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객들이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여행의 계획에서부터 준비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에 대해 환경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제공되는 것이다. 여행 중의 교통 및 숙박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 관광하는 곳에서의 환경에 좋은 선물의 구입 요령 등이 자세히 나와있다. 이 캠페인은 유엔환경계획에서 진행하지만 프랑스의 에콜로지 지속가능한 개발 국토 정비국과 브라질의 환경 관광부와 제휴를 통해 홈페이지에는 영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집트, 사막을 농지로 개간



▲이집트 아부 민차(Abu Minqar)가 사막에서 농경지로 변했다.

끝 없는 사막이었던 아부 민차(Abu Minqar)가 농촌으로 변했다. 이 마을은 이집트 정부의 '사막 녹화계획'의 극단적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헐벗은 땅 대부분의 경관이 비옥한 농지로 변했다.

이 정책은 이미 수십년 간 시행돼 온 것이지만 이제서야 대규모의 성공을 거두게 됐다.

리비아와 맞닿은 국경지대에 있는 아부 민차는 이집트 사막 농경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아부 민차는 이집트가 농경지를 어디에나 건설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카이로에 있는 아메리칸대학(American University) 사막연구센터(Desert Development Center : DDC)가 세운 연구시설 사우스타리르 스테이션(South Tahrir Station) 모센 나와라(Mohsen Nawara) 소장은 "사막이 이제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이제 모두 녹색이다"라고 말했다.

캐나다, 탄소저장 및 대중교통에 투자

캐나다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환경프로젝트에 지원을 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인프라 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몇 개 환경 프로그램 중에서 예산 2억5000만 캐나다 달러를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에 사용하고 또 다른 5억 달러는 대중교통 인프라를 향상하는 데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중교통 부문에 사용될 5억 달러는 특히 캐나다의 몇 개 주요도시에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밴쿠버의 에버그린 경전철(Evergreen Light



0101010100101101010001001011100111001100101010010010101

011001010100100101010101000101010101010101010101010101

Rapid Transit System), 토론토와 피터보로를 잇는 철도의 재건, 몬트리올의 고속철 신규 설비 및 업그레이드에 사용된다.

또한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에 투입되는 예산은 새스캐지완에서 시행되는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산업시설 및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며 장기간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점의 관측 정보가 제공된다.

향후 중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제휴해 라이더 관측 데이터의 공유화에 노력할 것이며 북동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황사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정비를 진행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환경성 황사현상 정보 홈페이지에서는 일본 전 지역뿐만아니라 몽골의 울란바토르와 서울도 황사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 황사현상 정보 홈페이지 운영



▲황사현상을 한눈으로 보여주는 홈페이지

일본 환경성은 황사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동시에 황사로부터의 예방 대책에 대한 참고 자료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2007년 봄부터 실시간으로 황사현상의 정보를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에 시험적으로 제공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 환경성은 2008년부터는 한층 더 발전된 자료 정보 수집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황사현상 정보 홈페이지 (<http://soramame.taiki.go.jp/dss/kosa/>)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본 국립 환경연구소 등의 협력으로 국내의 16곳에 라이더(LIDAR : 황사 관측기기) 관측 지

오스트레일리아, 세계최대의 태양력 발전소

오스트레일리아는 2009년도 기공식 계획으로 태양력 발전소를 건축해 4만5000주택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까지 설치된 태양력으로 보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발전소로 온실가스 제로방출을 목적으로 한 전력생산이다.

15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Victoria) 지역에 환경친화적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예상되는 건축투자액은 약 1억3000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건설업체 CLP그룹, 빅토리아 지방정부 그리고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 건설계획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미래 태양력 발전소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모야브(mojave)사막에 설치돼 세계에서 가장 큰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태양열 발전소 보다 두배가 넘는 전력을 생산해 세계의 제1인자로 나설 예정이다.

태양열 발전소 건설로 오스트레일리아는 매년 약 39만6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뿐더러 2050년까지 20%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성공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이다. ㉔